

# SVB·CS 등 '뱅크데믹' 여파에 국채자금 쓸림현상 극대화 전망

위험회피 심리에 안전자산 선호  
“코코본드 중심 채권시장 불안  
韓 크레딧 투자여건 간접적 수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스위스(CS) 코코본드(AT1) 채권 상각, 도이체뱅크 유동성 위기 등이 어진 연쇄 위기로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가운데, 국내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권시장 불안이 국채 자금 쓸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AA-등급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뺀 크레딧 스프레드는 77bp(1bp=0.01% 포인트)로 집계됐다. 올해 초 150bp 초반 수준에서 이달 초 67bp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으나,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SVB 파산 등 채권시장 투심이 위축되자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지면서다. 통상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난도가 높아져 기관투

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은행채 등 금융채의 발행액이 줄고 있다. 지난 28일까지 은행채와 기타금융채의 발행액은 총합 14조59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5조5200억원, 2월 16조 6830억원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를 보이는 중이다.

단, 전문가들은 뱅크데믹 등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코코본드 채권 상각 기준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국내 은행권 코코본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코코본드는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자본증권의 일종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코본드 상각의 세부조건은 각 금융기관이 정하는데 CS와 UBS의 AT1(코코본드)은 100% 손실로 설정됐다”면서 “이 같은 조건은 이례적인 것으로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국내은행의 위험성도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안전자산 선호를 좀 더 오래 유지시킴과 동시에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코코본드를 중심으로 한 채권시장 불안은 국채로의 자금 쓸림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히려 국내 채권금리를 안정시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의견도 나온다.

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융기관의 이벤트는 자산운용 실패 등 기업 고유의 위험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다”면서 “외려 전반적인 국내 크레딧 투자여건은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수준을 하회하는 국채금리 레벨은 국채 대비 크레딧 채권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달 초 연 3.8% 수준에서 29일 기준 연 3.2% 선까지 하락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김병권 SK에코플랜트 에코랩센터 대표(오른쪽)와 박광빈 엔츠 대표가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 SK에코플랜트, 탄소배출량 저감 나서

엔츠와 진단·감축 서비스 제공 MOU

SK에코플랜트는 탄소회계 솔루션 개발 기업인 엔츠(AENTS)와 ‘탄소배출량 진단 및 감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엔츠가 보유한 탄소회계 기반 탄소배출 관리 솔루션 고도화에 착수한다. RE100 로드맵 설정, 이행방안별 비용 분석, 실적 관리와 같은 세부기능을 추가한다.

SK에코플랜트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공동 기획과 테스트를 위한 파일럿 대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양한 고객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의 우수한 탄소감축 솔루션을 발굴해 플랫폼에 등록 및 중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이 시나리오별 탄소 감축 예상치를 사전에 확인해 직접 해결 방안을 선택, 관리할 수 있는 종합솔루션 기능

을 제작하며, 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도 확장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나 법령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별 표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해 필요한 기업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플랫폼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엔츠는 서비스의 기획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 운영·유지보수를 맡는다.

김병권 SK에코플랜트 에코랩센터 대표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방대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축방안을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탄소회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기업들의 고충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CEO 공백’ KT, 시총 2조 증발... 목표주가 ↓

KT 주가 2.66% 하락해 2만9250원  
올 SKT·LGU+ 상승세, KT 13% 하락

KT의 최고경영자(CEO) 공백 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도 선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는 전 거래일 대비 800원(2.66%) 내린 2만 9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KT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13% 이상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1월에는 소폭 반등하면서 3만66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달 들어서 3만원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시가총액도 1월 중 10조원에 육박했지만, 두 달새 2조원 가량이 증발했다. 같은 기간 다른 통신주인 SK텔레콤은 전년 말 대비 2.85% 상승, LG유플러스는 1.65% 하락에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KT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최근 구현모 전 대표이사, 윤경립 차



/\*뉴스스

기 대표이사 후보자의 사퇴 결정이 이어지면서 KT를 향한 경영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 전 대표는 지난해 이사회가 차기 CEO로 낙점했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정부에서 지배구조 투명화를 강조하면서 지난달 스스로 물러났다.

이어 차기 CEO에 윤 대표 후보가 올랐지만 지난 27일 끝내 사퇴를 결정했다. 여기에 전날 사외이사 2명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박종욱 경영기획 부문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KT의 리더십 공백화

사태를 두고 향후 전략방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하면서 목표주가를 낮추기도 했다. 이달에만 NH투자증권 5만원→3만8000원, 대신증권 5만2000원→4만4000원, 흥국증권 5만원→4만원 등 주요 증권사에서 목표주가를 두 자릿수 내렸다.

황성진 흥국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CEO의 윤곽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전략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당분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경영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정책당국의 다양한 압력 발생 가능성 또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새 CEO가 선임되고 이후 전략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

## 쌍용건설, 두바이서 1513억 공사 수주

키파프 플롯6에 ‘파크뷰 레지던스’  
지상 44층 465가구 규모, 통유리 마감

쌍용건설이 두바이에서 럭셔리 레지던스 수주 소식을 전했다.

쌍용건설은 최근 두바이 키파프(Ki faf) 플롯(PLOT)6 지역에서 약 1513억

원(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파크뷰 레지던스(Park Views Residences)’ 공사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파크뷰 레지던스는 지상 44층 1개동 465가구 규모로, 자빌 파크(Zabeel Park) 인근 두바이 최고 중심 주거지인 키파트 지역에 들어설 최고급 레지던

스로 탄생하게 된다.

건물 4각 모서리 부분들이 고급스런 통유리로 마감된 외관이 특징이며, 단지 내 주거시설 외에도 고품격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보류됐던 고급건축과 SOC 등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 IBK투자증권, 서정학 신임대표이사 선임

“국민·중소에 필요한 증권사 거듭”

IBK투자증권이 29일 서울 여의도 삼덕빌딩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서정학(사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서정학 신임 대표이사는 1963년생으로 경성고와 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했다.

기업은행 싱가포르·뉴욕지점 등에 근무했으며, IB지원부장, 기술금융부장, IT그룹장, 글로벌·자금시장그룹장, C



IB 그룹장을 거쳐 2021년부터 IBK저축은행장을 역임해왔다.

서정학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국내 유일의 국책은행 계열 증권사로서 국민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증권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IBK금융그룹 네트워크에 투자증권만의 전문역량을 더해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 DB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에 광봉석

“구조화금융 등 IB 분야 전문가”

DB금융투자는 29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광봉석(사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대표이사로 선임된 광봉석 사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투자신탁을 거쳐 2005년 DB금융투자 사장에 합류했다. 2011년 프로젝트금융 본부장을 거쳐 2019년 PF사업부 부사장, 2022년 PF사업부 겸 IB사업부 총



괄부사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12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되고 경영총괄사장을 맡아왔다.

DB금융투자는 “광봉석 대표이사 사장은 구조화금융 등 IB분야의 전문가로 DB금융투자가 관련 사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미경 기자